

국립박물관소개 (國立博物館紹介)



국립박물관

1. 박물관(博物館)의 연혁(沿革)

우리나라에 박물관(博物館)이 처음으로 생기는 1915년이였다.

그때 일본(日本)사람들이 소위(所謂) 조선총독부 박물관(朝鮮總督府 博物館)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곳에는 주(主)로 그들이 우리 나라의 고적조사(古蹟調査)를 하여서 얻은 여러 가지 역사연구(歷史研究)에 필요(必要)한 자료(資料)와 또는 그들이 보아서 미술품(美術品)으로 중요(重要)하다고 생각한 물건(物件)을 모아놓았던 것이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解放)되면서 우리는 새로이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을 만들어 日本 사람들이 경영(經營)하던 이 박물관 사업(博物館 事業)을 넘겨 받고 그때까지 있던 경주 부여(慶州 扶餘)의 분관(分館)과 새로이 공주(公州)와 개성(開城)에 있던 박물관(博物館)을 분관(分館)으로 편입(編入)하여 새로운 박물관(博物館) 사업(事業)으로 발족(發足)하였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은 원래(元來)는 중앙역(中央驛) 뒤 경복궁(景福宮) 안에 위치(位置)하고 있었으나 정부(政府)의 방침(方針)에 따라 1953년에 덕수궁(德壽宮)안에 있는 석조전(石造殿)으로 옮겨왔었다.

지금(至今) 이 곳에 진열(陣列)된 물건(物件)은 방대(龐大)한 수집품(蒐集品) 中의 극(極)히 소부분(小部分)에 속(屬)하며, 또 전쟁(戰爭)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집품(蒐集品)

을 남(南)쪽의 더 안전(安全)한 곳으로 옮겨 놓은채 일부(一部)는 아직 서울로 가져 오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쟁같은 위험(危險)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면, 곧 이들을 서울에 옮겨놓아 일반관람(一般觀覽)에 제공(提供)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정(事情)으로 지금(至今) 이 곳에 진열(陳列)된 수집품(蒐集品)들은 우리 박물관(博物館)이 수장(收藏)하고 있는 제일 좋은 진열품(陳列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두고자 한다.

편의상(便宜上) 현재(現在)는 윗 층(層)에는 삼국시대이후(三國時代以後)의 불상(佛像)과 고려(高麗)·이조시대(李朝時代)의 도자기(陶磁器)를 진열(陳列)하였고, 아랫 층(層)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 및 신라시대유물(新羅時代遺物)과 또 석기시대(石器時代)와 낙랑시대(樂浪時代)의 유물(唯物)을 진열(陳列)하였으므로 만약(萬若) 보는 사람이 뜻을 두고 본다면 능(能)히 우리 한국문화(韓國文化)의 전반(全般)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 박물관(博物館) 진열품(陳列品)의 개요(概要)

① 불상(佛像)

이층(二層) 중앙(中央) 홀에는 현재(現在) 신라(新羅)·고려시대(高麗時代)의 불상(佛像)만을 진열(陳列)하였다.

불상(佛像)이라는 것은 대체(大體)로 부처님의 길을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종류(種類)가 있다.

그 중 우리가 많이 보는 불상(佛像)은 석가불아미타불(釋迦佛阿彌陀佛) 또는 약사여래(藥師如來)와 같은 불(佛).불타(佛陀) 또는 여래(如來)라고 불리는 것과 미륵보살(彌勒菩薩), 관음보살(觀音菩薩), 문수보살(文殊菩薩), 세지보살(勢至菩薩) 같은 보살(菩薩)의 두 가지가 있다.

불(佛)은 이미 깨달은 분을 가리키며, 보통(普通)은 승려(僧侶)의 옷을 입고 아무런 장식(裝飾)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다.

보살(菩薩)은 깨닫고자 하는 분으로 인간세상(人間世上)을 건지는 일을 보며, 보관(寶冠)을 쓰고 여러 가지 장식품(裝飾品)을 몸에 달고 있다.

이 외(外)에 나한(羅漢)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弟子)로 승려(僧侶)의 옷만을 입고 보통(普通)은 약간(若干) 몸을 구부리고 금욕(禁慾)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부처님이 이들과 구별(區別)되는 제일중요(第一重要)한 점(點)은 머리 위에 솟아나온 육계(肉髻)라는 두드러진 것과 강구려전 소위 나발(螺髮)이라는 머리털과 고요하고 맑은 표정(表情)이라고 할 것이다. 이 중앙(中央)의 홀에 있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여래상(如來像)에서 바로 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불교(佛敎)가 들어오기는 4세기(世紀)이며, 중국(中國)으로부터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에 들어왔고, 다시 고구려(高句麗)에서 신라(新羅)에 전(傳)하여졌는데 그 때까지 아직도 높고 깊은 교리(敎理)를 가진 종교(宗敎)에 굽주린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歡迎)을 받았던 것이다.

이래서 우리 나라에 훌륭한 불교문화(佛敎文化)가 발달(發達)되었으며 신라(新羅)나 백제(百濟)에서는 간 곳마다 크고 화려(華麗)한 절(寺)들이 세워졌으니 오늘날 신라

(新羅)의 옛 도읍(都邑)인 경주(慶州)에 가면 그 때에 서 있던 절들은 비록 없어졌으나 그 자취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탑(塔)이나 주춧돌(礎石) 같은 것, 또는 돌(石)이나 구리(銅)로 만든 불상(佛像) 같은 것이 즉(卽),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유명(第一有名)한 불교유적(佛敎遺蹟)을 들면 석굴암(石窟庵), 불국사(佛國寺), 분황사(焚黃寺), 사천대왕사지(四天王寺址), 황룡사지(皇龍寺址), 사면석불(四面石佛)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나 경주지방(慶州地方) 이외에도 이 시대(時代)에 속(屬)하는 많은 유물(遺物)이 남아있다.

백제(百濟)는 삼국(三國) 중에도 이 제일 작고 힘이 약(弱)한 나라이었으나 그 나라 사람들은 특별(特別)히 예술(藝術)에 탁월(卓越)한 재질(才質)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많은 승려(僧侶)와 학자(學者)와 예술가(藝術家)를 일본(日本)으로 보내어 그 나라의 문화(文化)를 발전(發展)시키는 데 크게 도와주었으니, 오늘날 일본(日本)의 사찰(寺刹)에 보관(保管)되어 있는 많은 미술품(美術品)에는 직접(直接) 이들 백제(百濟)예술가(藝術家)의 손으로 된 것이나 또는 그들의 지도(指導) 下에 된 것이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 땅에는 유감(遺憾)이나마 백제(百濟)의 유물(遺物)은 고구려(高句麗)의 유물(遺物)과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에 파괴(破壞)된 것이 많아서 후세(後世)에 전(傳)하여 내려온 것이 드물며,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도 그리 많은 수(數)가 모이지 않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는 신라시대(新羅時代)의 불상(佛像)과 또는 불교(佛敎)에 관계(關係)있는 미술품(美術品)이 진열(陳列)되어있으나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의 물건(物件)은 극(極)히 소수(小數)가 진열(陳列)되어 있다.

신라시대(新羅時代)의 불교관계(佛敎關係)의 물건(物件)으로 불상(佛像) 외(外)의 제일(第一) 중요(重要)한 것은 경주(慶州)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에서 발견(發見)된 천왕(天王)을 새긴 전돌(栞)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②도자기(陶磁器)

도기(陶器)라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높은 열(熱)로 구어낸 그릇을 말한다.

사람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쓰기는 멀리 석기시대(石器時代)에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이러한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많이 발견(發見)하였으며 몇 점(點) 진열(陳列)되어 있다. 이 석기시대(石器時代)의 그릇은 아직 높은 열(熱)에 구어낸 것이 아님으로 그릇 자체(自體)가 물을 빨아드리는 성질이 있으니 이런 것을 보통 토기(普通土器)라고 일컫는다.

이 토기(土器)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형태(形態),질(質), 문양(文樣)같은 것을 연구(研究)하는 것은 그 토기(土器)를 만든 민족(民族)의 문화(文化)를 연구(研究)하는 데 대단(大端)히 중요(重要)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석기시대(石器時代)의 토기(土器) 中에는 절문토기(節文土器),도단토기(塗丹土器),후육무문토기(厚肉無文土器)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것은 모두 석기시대(石器時代)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던 민족(民族)과 그 시대(時代)의 문화(文化)를 연구(研究)하는 데 큰 참고(參考)가 되는 것이다.

석기시대(石器時代)를 지나서 문화(文化)가 더 발달(發達)되면 토기(土器)보다도 더

높은 열(熱)로써 그릇을 구어내니 이것을 우리는 도기(陶器)라고 한다. 신라통일(新羅統一)이 된 후(後)에 만들어진 것은 토기(土器)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도기(陶器)의 부류(部類)에 드는 것이 많으며, 그 中에는 벌써 유약(釉藥)을 씌운 것도 있다.

신라토기(新羅土器)에는 여러 가지 형태(形態)와 무늬를 가진 것이 있으며, 그 中 큰 골호(骨壺)는 사람을 화장(火葬)한 후(後) 그 뼈를 넣어서 매장(埋藏)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늬를 새긴 도장으로 몸체에 같은 무늬를 연속해 찍어서 장식(裝飾)한 것이다.

이렇게 무늬를 만드는 법은 신라통일(新羅統一)이 된 후(後)에 많이 쓰여지는 기술(技術)로 알려져 있다.

토기(土器) 또는 도기(陶器)는 신라(新羅)가 망(亡)한 후(後)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계속(繼續)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때 마침 기술상(技術上)으로 큰 발달이 생겨 저 유명(有名)한 고려(高麗)의 청자기(靑磁器) 즉(卽), 우리 나라에서 고래(古來)로 이르는 바 고려청자기(高麗靑磁器)가 나오게 되었다.

원래(元來)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높은 열도(熱度)로 구우면 그 사용(使用)된 흙의 질(質) 약(弱)한 경우(境遇)에 제 모양(模樣)대로 있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법인데, 이 고려(高麗)의 청자기(靑磁瓷器)는 아무리 얇은 그릇이라도 섭씨(攝氏) 1300~1400도(度) 가량(假量)의 열(熱)로써도 제 모양(模樣)대로 구워지는 좋은 흙을 썼으며, 이 도기(陶器) 바탕이 되는 흙을 태토(胎土)라고 한다.

또, 표면(表面)에 유약(釉藥)을 발라서 굽기 때문에 맑은 글래스질(質)이 생기는데 그 유약(釉藥)의 색깔이 푸르고 녹색(綠色)을 띤 아름다운 것임으로 중국(中國) 사람들은 그 빛깔을 천하(天下)의 제일가는 빛이라고 칭찬하였다.

이 자기(磁器)를 만드는 법은 당시(當時)의 중국(中國)(그 때는 송(宋)나라 때이다)에서 전(傳)하여 온 것으로 오랫동안 도자기(陶磁器)를 만드는 법은 중국(中國)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만이 알고 있었으며, 서양(西洋)에서는 불과 약(約)2백년 전(前)에야 비로서 그것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웃인 日本에서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우리 나라의 기술자(技術者) 도공(陶工)을 붙잡아다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中國)에서는 일찍 월주(越州)라는 데서 우리 고려자기(高麗磁器)와 비슷한 빛을 가진 자기(磁器)를 만들고 있었으므로 고려(高麗) 사람들은 맨 처음 그 월주(越州)의 청자기술(靑磁技術)을 받아들였다고 짐작되지만 고려(高麗)에서 언제부터 청자기(靑磁器)를 만들었는지는 정확(正確)하게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순화사년계사태묘제일실형기장취길희조(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亨器匠崔吉會造)」라는 글씨가 새겨진 청자기(靑磁器)를 개성(開城)발견(發見)한 일이 있는데 순화(淳化)四年이라는 것은 서기(西紀) 993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때에는 고려(高麗)에도 중국(中國) 월주(越州)에서 구운 청자기(靑磁器)에 비슷한 청자유약(靑磁釉藥)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순화(淳化) 4년명(銘) 청자(靑磁) 항아리는 고려청자기(高麗靑磁器) 원조(元祖)라고 볼 수 있는 정도(程度)의 불완전(不完全)한 청자유약(靑磁釉藥)이 씌워져 있었으나 이러한 불완전(不完全)한 청자기술(靑磁技術)이 약(約) 130년 후(後)인 12세기초(世紀初) 인종(仁宗) 원년(元年)에는 송(宋)나라 사신(使臣)을 놀라게 해줄 정도(程度)로 우수(優秀)한 청자기(靑磁器)를 생산(生産)하리만치 발전(發展)되었던 것이니, 서기(西紀) 1123년 송(宋)나라에서 고려(高麗)에 사신(使臣)이 왔는데 그 사신(使臣)을 따라 온 서궁(徐兢)이라는 사람이 「고려도경(高麗圖經)」이라는 책(冊)을 쓰고 그안에 고려(高麗)

에서 본 여러 가지 일을 보고(報告)한 속에서 고려자기(高麗磁器)의 훌륭한 이야기와 또 짐승의 모양(模樣)을 한 청자기(靑磁器)를 보았다고 하였다.

지금(至今)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훌륭한 고려자기(高麗磁器) 몇가지를 진열(陳列)하였으니 바로 우리 나라 가을의 하늘 빛과도 같은 색(色), 이른바 고려(高麗) 사람들이 비색(翡色)이라고 일컫는 빛깔로서 중국(中國)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빛깔은 내어본 일이 없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기(磁器)는 대개(大概)초기(初期) 것은 절(寺)에서 불교의식(佛敎儀式)에 쓰여졌던 것이 많고, (많이 쓰여진 연꽃무늬는 불교(佛敎)와의 관계(關係)를 말한다) 후(後)에는 궁중(宮中)이나 그 때 귀족(貴族)들 사이에도 보급(普及)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각(透刻)으로 새긴 네모난 상자형(箱子型)의 청자기(靑磁器)는 화장(化粧) 그릇으로 생각되며, 이 상자(箱子) 속에서는 거울과 화장(化粧)에 쓰는 물건(物件)이 함께 발견(發見)되었다.

고려자기(高麗磁器) 中에는 소위(所謂) 상감(象嵌)이라는 특수(特殊)한 방법(方法)으로 꽃이나 나무 또는 새 같은 무늬를 그릇의 표면(表面)에 얇게 새기고 그 새겨낸 그림 위에 검은 색(色)이나 흰 빛깔의 흙물을 바른 후(後), 그릇의 표면(表面)을 물레로 한번 깎아내서 새겨진 선(線) 속에 묻은 흙만을 남겨서 무늬가 되도록 한 독특(獨特)한 기법(技法)을 쓴 것이 매우 발달되었다. 이러한 기법(技法)을 상감(象嵌)이라 하여 이러한 상감(象嵌) 무늬로 장식(裝飾)한 그릇 위에 청자유약(靑磁柚藥)을 씌워서 굽는 것이 소위(所謂) 상감청자(象嵌靑磁)이니 이 상감(象嵌)이야말로 우리 나라에만 발달(發達)된 것으로서 12세기(世紀)에 가장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이 만들어졌다.

고려자기(高麗磁器) 中에는 청자기(靑磁器) 아닌 백색(白色)으로 된 백자기(白磁器)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亦是) 그 때 중국(中國) 송(宋)나라의 정요(定窯), 또는 경덕진요계통(景德鎮窯系統)의 백자기 기술(白磁器技術)을 배워서 만든 것으로 짐작되며, 그 중(中)에도 중국(中國)의 청백자(靑白磁)라는 약간(若干) 푸른 색조를 띤 흰 자기(磁器)와 거의 같은 유약(柚藥)과 태토(胎土)로 된 고려백자기(高麗白磁器)가 있어서 자기 연구(磁器 研究)하는 학자(學者)들에게 좋은 연구자료(研究資料)로 되어있다.

이 외(外)에도 주(主)로 중국(中國) 자주요(磁州窯)의 계통(系統)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그림을 그린 고려자기(高麗磁器)도 있고, 또 검은 빛의 고려자기(高麗磁器)도 있으며,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장식기법(裝飾技法)이 병행(併行)하고 있었으니, 우리 나라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자기(磁器) 만드는 기술(技術)은 놀랄만치 발달(發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가 지나고 이씨조선시대(李氏朝鮮時代)가 되어서도 훌륭한 많은 자기(磁器)를 만들었지만 다만 고려자기(高麗磁器)와는 다른 좀더 실용적(實用的)인 모습으로 바뀌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자기(高麗磁器)의 아름다운 빛과 우아(優雅)한 맵시는 세계(世界)의 으뜸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불교의식(佛敎儀式)이나 왕궁(王宮)에서 쓰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것이고, 후에 일반(一般) 귀족사회(貴族社會)에서도 애용(愛用)되었으나 너무나 연약하게 보여졌던 것이다.

이씨조선 초기(李氏朝鮮 初期)에는 분장청사기(粉粧靑沙器)(이를 약(略)해서 분청사기(粉靑沙器)라는 새로운 양식(樣式)의 자기(磁器)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중국(中國)명(明)나라의 청화자기(靑華磁器)의 영향(影響)으로 발달(發達)된 흰 바탕에 푸른 색(色)으로 무늬를 그린 청화자기(靑華磁器)와 병행(併行)해서 임진왜란까지 성행(盛行)했

던 것이다.

백자기(白磁器) 中에는 철사(鐵砂)나 진사(辰砂)같은 것으로 붉은 무늬나 갈색무늬를 그린 것도 있다. 고려자기(高麗磁器)의 경우(境遇)도 그렇거니와 이씨조선(李氏朝鮮)의 자기(磁器)도 항상(恒常) 그 때의 중국(中國) 도자기(陶磁器)의 영향(影響)을 받았으나 이러한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요소(要素)에는 재빨리 흡수소화(吸收消化)되어 언제나 우리 자기(磁器)에서 풍겨나는 맛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만 있는 정서(情緒)인 것이다.

③ 회화(繪畫)

우리 나라 회화사(繪畫史)의 첫머리를 장식(裝飾)하는 것은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 무덤의 벽(壁)에 그려있는 고분벽화(古墳壁畫)이다. 우리 나라 만포진(滿浦鎭)에서 멀지않은 압록강(鴨綠江)가의 만주(滿洲) 쪽에 있는 집안(輯安)이라는 곳은 바로 고구려(高句麗)의 두 번째 도읍지(都邑地)로서 그 곳에는 서기(西紀) 5.6세기경(世紀頃)에 만들어진 수천수만(數千數萬)을 헤아릴 수 있는 많은 고구려(高句麗)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 이들 무덤은 벌써 아득한 그 옛날 고구려(高句麗)가 망(亡)할 때에 이미 파괴되어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物件)은 없어져 버렸으나 오직 그 묘실(墓室)의 벽(壁)에 그려 있는 그때의 벽화(壁畫)만은 천수백년(千數百年)을 지낸 오늘까지도 영롱(玲瓏)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들의 그림을 보면 그 때의 풍속(風俗)과 사람들의 생활(生活)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회화사(東洋繪畫史)에 대단(大端)히 중요(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다.

고구려(高句麗)는 그 후(後) 도읍(都邑)을 지금(至今)의 평양부근(平壤附近)에 옮겼는데 그 곳에 남아 있는 고분(古墳)에서도 역시(亦是) 그러한 훌륭한 여러 가지 벽화(壁畫)들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벽화(壁畫)를 이곳에 옮겨 올 수는 없으므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서는 이들 벽화(壁畫) 中에서 중요(重要)한 것만 골라서 모사(模寫)하였으니 2층(二層) 벽(壁)에 걸려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歷史)를 펼쳐보면 신라(新羅)에도 솔거(率居)와 같은 훌륭한 화가(畫家)가 많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至今)은 그것을 상고(詳考)할 아무런 그림도 남아있지 않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그림도 남아있는 것이 대단(大端)히 적으며, 영주(英州) 부석사(斧石寺)에 그 때의 벽화(壁畫)가 남아있고, 또 고려시대(高麗時代) 불화(佛畫)라고 전(傳)하여 오는 것이 몇점 있을 정도(程度)이다. 또, 공민왕(恭愍王)의 그림으로 전(傳)하여 오는 것도 있으나 이러한 소품(小品)으로는 그 때의 회화(繪畫)를 짐작하기 어려운 정도(程度)이다.

이렇게 오래된 회화(繪畫)가 전(傳)하여 오는 것이 적은 이유(理由)는 우리 나라에는 고래(古來)로 다른 나라의 침략(侵略)을 받은 일이 많아 그럴 때마다 그러한 미술품(美術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전후(前後) 7年이나 계속(繼續)되어서 궁전(宮殿)이나 사찰(寺刹)같은 것이 많이 타 없어져서 그 곳에 있는 회화(繪畫)같은 것은 다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래도 이씨조선시대(李氏朝鮮時代)의 그림은 비교적(比較的) 많이 남아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도 많이 진열(陳列)되어 있다.

정선(鄭敼)은 호(號)를 겸재(謙齋)라고 하며, 숙종(肅宗) 때의 사람으로 (서기(西紀) 1678~1759)그 산수화(山水畫)는 우리나라의 독특(獨特)한 존재(存在)로 유명하며, 심사정(沈師正)은 호(號)를 현재(玄齋)라 하며, 역시 숙종(肅宗) 때 사람으로 (서기(西紀)

1707年生)겸재(謙齋)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역시 숙종(肅宗)때 사람)와 더불어 소위(所謂) 삼재(三齋)라고 일컫는 분으로 그의 그림은 명(明)나라 심주(沈周)의 필법(筆法)의 영향(影響)을 받았었다.

우리 나라의 화가(畫家)로서 누구에게나 제일친밀(第一親密)한 감(感)을 가지게 하는 이는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인 것이다. 단원(檀園)은 영조(英祖)37年(西紀1760)에 태어나서 오래도록 화원(畫員)으로 되어있었으며, 산수(山水)도 잘하고 인물화(人物畫)도 잘하나, 그의 그림으로 제일(第一)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풍속화(風俗畫)로서 그 풍속화(風俗畫) 중(中)에서도 제일 유명(第一有名)한 것이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진열(陳列)된 화첩(畫帖)일 것이다.

단원(檀園)과 같이 풍속화(風俗畫)로 유명(有名)한 분은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으로 역시 화원(畫員)을 지낸 분이었다. 이분의 유명(有名)한 풍속화화첩(風俗畫畫帖)이 미국(美國)에 전시(展示)되어 크게 환영(歡迎)을 받은 바 있다.

연담(淵潭) 김명국(金明國)은 인조(仁祖) 때 사람으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있는 달마도(達磨圖)는 가장 유명(有名)한 그림으로 그 사람됨이 술 잘 마시고 호탕(豪蕩)한 바 있었으며, 붓을 들면 단숨에 일필 휘지하는 그림을 그리던 사람으로 이름있다. 일본(日本)에 통신사(通信使)로 따라 갔던 분으로 그의 화풍(畫風)은 일본(日本) 화가(畫家)들의 본받이로 되었었다.

④ 고활자(古活字)

문화(文化)를 널리 보급(普及)시키는데 절대적(絕對的)인 책(冊)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읽도록 하는 방법(方法)으로서는 나무판에 글을 새겨서 찍어내는 방법(方法)도 있거니와 그 보다 더 편리(便利)한 방법(方法)은 활자(活字)를 만들어서 사용(使用)하는 방법이다. 이 활자(活字)를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의畢昇(畢昇)이라는 사람이지만 그는 흙으로 활자(活字)를 만들었다고 전(傳)하여 온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활자(活字)는 실제(實際)로 사용(使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것은 한 생각에 불과(不過)한 것이고 크게 사용(使用)되지는 않았다.

이 문화보급(文化普及)에 가장 중요(重要)한 활자(活字)를 금속(金屬)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使用)한 것은 고려(高麗)사람이며, 이미 고려(高麗) 고종(高宗) 19年부터 28年사이 (西紀1232年 ~ 1241年)에 책(冊)을 금속활자(金屬活字)로 인쇄(印刷)하였다는 기록(紀錄)이 남아 있다. 이것은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金屬活字)를 만들었다는 것 보다도 실(實)로 약(約) 200年이나 앞선 일이었다. 그러므로 금속활자(金屬活字)는 세계(世界)에서 우리 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發明)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람이 길이길이 두고 자랑할 수 있는 위대(偉大)한 발명(發明) 중의 하나인 것이다.

현재(現在)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진열(陳列)된 활자(活字)는 그렇게 오랜 것은 없고, 지금(至今)부터 약(約) 200年 전(前)에 만들어진 위부인자(衛夫人字) 실록자(實錄字) 정리자(整理字)라고 불리우는 여러 활자(活字)이다.

⑤사전시대(史前時代)의 유물(遺物)

인류(人類)의 문화상태(文化狀態)가 가장 유치(幼稚)할 때 칼, 도끼, 활촉같은 연장을 돌로 만들어 썼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時代)를 석기시대(石器時代)라고 부른다. 그 석기시대(石器時代)가 어느 때까지 우리 나라에 계속(繼續)되었는지는 확실(確實)히 알기 어려운 일이나 지금(至今)부터 약(約) 3000年, 또는 일부(一部)에서는 2000年 전(前)까지도 계속(繼續)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후(後) 우리 조상(祖上)들은 금속(金屬)인 구리(銅)로 연장을 만드는 법(法)을 배워서 그것을 석기(石器)와 같이 쓰게 되었으니 이 시기(時期)를 이른바 금석공용시대(金石供用時代)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석기시대(石器時代)와 금석공용시대(金石供用時代)의 유물(遺物)들이 전국(全國) 각처(各處)에서 발견(發見)되어 그때의 생활상태(生活狀態)와 문화연구(文化研究)에 중요(重要)한 재료(材料)가 되고 있다.

석검(石劍)과 돌로 만든 활촉(石鏃)은 석관(石棺)이나 고인돌(支石墓)에서 나오는 일이 많으며, 그중 돌칼같은 것은 그 모양(模樣)으로 보아서 그것은 구리로 만든 동검(銅劍)의 모양(模樣)을 모방(模倣)한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이런 것은 석기시대(石器時代)의 말기(末期)나 금석공용시대(金石供用時代)의 유물(遺物)임이 틀림없다.

동검(銅劍)이나 동모(銅錐)는 전국(全國) 각처(各處)에 걸쳐 발견(發見)되며, 우리 나라 금석공용기(金石供用期)를 대표(代表)하는 가장 현저(顯著)한 유물(遺物)이지만 비슷한 물건(物件)이 일본(日本)에서도 발견(發見)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를 거쳐서 문화(文化)가 그리로 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 유물(遺物)에 섞여서 얼른 보기에 칼 같이 생긴 명도전(明刀錢)이라는 돈이 출토(出土)되어 있다. 명도전(明刀錢)이라는 이름은 그 칼위에 명자(明字)가 새겨있기 때문이다. 이 명도전(明刀錢)은 중국(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연(燕), 또는 조(趙)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평안도(平安道) 쪽에서 많이 나고 더욱이 강계(江界) 위원(渭原)같은 산간지대(山間地帶)에서 주로 발견(發見)되어 주목(注目)되고 있다.

⑥ 낙랑시대(樂浪時代) 유물(遺物)

우리 나라 북(北)쪽에는 중국(中國)을 통일(統一)한 한(漢)나라가 서기전(西紀前) 2세기말(二世紀末)에 사군(四郡)을 두고 다스린 일이 있었다.

이것을 낙랑(樂浪), 임둔(臨屯), 진번(眞番), 현토(玄菟)의 사군(四郡)이라 한다. 이 네 군은 문화적(文化的)으로 수준(水準)이 높은 외국(外國)사람들이 직접통치(直接統治)하는 바가 되었으므로 원래(元來)부터 이곳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문화적(文化的)으로나, 또는 정치적(政治的)으로나 많은 자극(刺戟)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차츰 자각하기 시작한 그들은 이 새로운 외래자(外來者)에 대항(對抗)하여 나라를 세우고, 급기야는 이들 군(郡)을 공격(攻擊)하여 결국(結局)은 낙랑부(樂浪部)만이 남아, 후(後)에 그 남(南)쪽에 생긴 대방군(帶方郡)과 같이 서기(西紀) 사세기(四世紀)에 고구려(高句麗)에게 멸망(滅亡)을 당(當)할 때까지 4백年동안 존속(存續)하였던 것이다.

낙랑부(樂浪部)의 중심(中心)은 현재(現在)의 평양 부근(平壤附近)으로서 대동부(大同部) 대동면(大同面) 토성리(土城里)에 있는 토성(土城)은 그 도읍(都邑)이 있던 곳으로 생각되며, 그 주위(周圍)에는 수천(數千)으로 헤아리는 옛 무덤이 남아있어 많은 이 시대(時代)의 유물(遺物)이 발견(發見)되었었다. 이들 유물중(遺物中)에서 대단(大端)히 중

요(重要)한 일부분(一部分)은 본래(本來) 평양박물관(平壤博物館)에 진열(陳列)된 채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전쟁(戰爭)을 겪은 뒤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낙랑(樂浪)의 토기(土器)는 매우 특징(特徵)이 있는 것이 있고, 그 토우(土偶)같은 것도 자미(滋味)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시대(時代)의 가장 유명(有名)한 것은 칠기(漆器)일 것이다. 평양박물관(平壤博物館)에 있던 채협총(彩篋塚) 출토(出土)의 칠기(漆器)는 세계적(世界的)으로 유명(有名)하며, 동양(東洋)에서 발견(發見)된 칠기(漆器)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또, 이 칠기(漆器) 중에는 한(漢)나라 연호(年號)있는 명문(銘文)이 있어 그 칠기(漆器)를 만든 해도 알거니와 또 만든 곳까지도 적은 것이 있다.

지금(至今)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는 다만 몇 개의 깨어진 칠기(漆器)를 진열(陳列)하였을 따름이다.

이 칠기(漆器) 외(外)에도 낙랑고분(樂浪古墳)에서는 청동(靑銅)으로 만든 거울(靑銅鏡)이 많이 나온다. 이들 거울에도 명문(銘文)이 있어 좋은 연구재료(研究材料)가 된다. 낙랑고분(樂浪古墳)의 일부(一部)는 벽돌(塼)로 만든 것이 있으며, 그 벽돌에도 역시 명문(銘文)이 보이는 것이 있고, 또 그 때 지붕에 쓴 기와(瓦)에도 [낙랑예관(樂浪禮官)]이니 [연수만세(延壽萬歲)]이니 하는 명(銘)이 있다. 이들 칠기(漆器), 청동경(靑銅鏡) 또는 금(金)으로 만든 공예품(工藝品) 같은 것은 모두 당시(當時) 한(漢)나라 문화(文化)가 얼마나 고도(高度)로 발달(發達)하였는지 아는데 좋은 재료(材料)가 되어 있다.

⑦ 삼국시대(三國時代)와 신라통일시대(新羅統一時代) 유물(遺物)

옛적 삼국시대(三國時代) 즉(卽),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의 세 나라가 서 있을 때 제일(第一) 강(強)한 나라는 북(北)쪽에 있는 고구려(高句麗)로서 그 강토(疆土)도 우리 나라의 북부(北部)와 만주(滿洲)의 남(南)쪽을 차지하고, 그 때 중국(中國)을 통일(統一)한 수(隨)나라와 당(唐)나라의 침략(侵略)을 쳐부술 수 있을만큼 세력(勢力)이 컸었다. 그러나, 칠세기(七世紀)에 신라(新羅)와 당(唐)나라 연합군(聯合軍)에게 멸망(滅亡) 당(當)하고는 그 때 침략(侵略)하여 온 그들 군사(軍士)들에게 파괴(破壞)를 당(當)하여 지금(至今) 고구려(高句麗)의 유물(遺物)로는 남아있는 것이 대단(大端)히 드물다.

때를 거의 같이 하여 나라가 망(亡)한 백제(百濟)도 역시 같은 이유(理由)로 후세(後世)에 남긴 유물(遺物)이 대단(大端)히 적다. 지금(至今) 진열(陳列)되어 있는 백제(百濟)의 청동(靑銅)으로 만든 관(冠)은 대단(大端)히 희귀(稀貴)한 것이며, 전라도 지방(全羅道地方)에서 출토(出土)된 것이다.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 풍납리(風納里)에는 지금(至今)도 백제시대(百濟時代)의 토성(土城)이 있는데 그 곳에서 초두(鏃斗)라고 일컫는 청동(靑銅)으로 만든 그릇이 나왔다.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를 멸망(滅亡)시키고 우리 반도(半島)를 통일(統一)한 후(後) 신라(新羅)는 10세기(十世紀)에 이르기까지 영화(榮華)를 누렸으며, 또 나라가 망(亡)할 때에도 적병(敵兵)에게 도읍(都邑)같은 것을 무찌름을 당(當)한 일이 없음으로 신라(新羅)의 유물(遺物)은 남아있는 것이 많다. 지금(至今)도 경주(慶州) 일대(一帶)에는 많은 불교유적(佛敎遺蹟)이 있으며, 또 백으로 헤일수 있는 웅장(雄壯)한 옛 무덤이 있으니 이들 무덤에서는 이때까지 신라(新羅)의 문화(文化)가 얼마나 고도(高度)로 발달(發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유물(遺物)이 발견(發見)되었다.

이 무덤 中에서 제일(第一) 유명(有名)한 것이 김관총(金冠塚), 금령총(金鈴塚), 서봉총(瑞鳳塚), 호간총(壺杆塚)같은 것으로 그 中 김관총(金冠塚), 금령총(金鈴塚)과 서봉총(瑞鳳塚)에서는 각기(各己) 금관(金冠)이 발견(發見)되었으며, 이들 금관(金冠)은 미국(美國) 각(各) 도시(都市)에 전시(展示)되어 크게 우리 고대문화(古代文化)의 찬란(燦爛)한 일면(一面)을 보여준 일도 있다.

이 서기(西紀) 5세기(五世紀) 전후(前後) 신라(新羅) 무덤에는 유리로 만든 목거리를 걸고 금(金)귀고리에 금(金)이나 옥(玉)으로 만든 장식품(裝飾品)을 달고, 금(金)이나 흑(或)은 금동(金銅)(구리로 만들고 금(金)을 올린 것)의 관(冠)을 쓰고 금동(金銅)의 신을 신고 큰 칼을 찬 시체를 묻었고, 그 시체와 같이 각종(各種) 토기청동기(土器靑銅器) 유리그릇 같은 것이 부장(副葬)되어 있다.

⑧ 서역지방 출토(西域地方 出土)의 유물(遺物)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는 세계(世界)에 희귀(稀貴)한 여러 가지 많은 물건(物件)이 모아있으나 그 中에서도 귀중(貴重)한 물건(物件)은 중앙아세아(中央亞細亞)의 이른바 서역(西域)에서 온 물건(物件)이다. 약(約) 3백 5~60점(點)에 달(達)하는 이들 벽화(壁畵), 불상(佛像), 토우(土偶) 옛패(古貝) 제기(祭器)같은 것은 [키질][투르환] [카라코자] 등(等) 20여(餘) 개소(個所)에서 모아 온 것으로 이들은 대개(大概) 중국(中國)의 육조시대(六朝時代)부터 당(唐)나라 말기(末期)에 해당(該當)하는 중요(重要)한 유물(遺物)들이다. 그러나 지금(至今)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은 그것을 내놓을 만한 장소(場所)가 없어서 진열(陳列)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의 연혁(沿革)을 약술(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①8. 15전(前)의 동태(動態)

1915年 12月 일제시정(日帝施政) 5주년기념(五週年記念) 물산공진회(物産共進會)의 미술관(美術館) 건물(建物)을 진열본관(陳列本館)으로 하고, 경복궁고건물(景福宮古建物)의 일부(一部)를 이용(利用)하여 총독부박물관(總督府博物館)으로 창립(創立)

1926年 경주분관 설치(慶州分館 設置)

1929年 부여분관 설치(扶餘分館 設置)되고 평양(平壤)과 개성(開成)에 시립박물관(市立博物館)이 창립(創立)되어 이들 각(各) 분관(分館)에서 대여(貸與)하였으며, 운영관리(運營管理)도 직접(直接) 담당(擔當)하였다.

② 8.15후(後)의 동태(動態)

1945年 9月 미군정청(美軍政廳)은 총독부박물관(總督府博物館)과 그 산하기구(傘下機構) 일질(一切)을 포함(包含)하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으로 개편(改編)함과 동시(同時)에 관장(館長)에는 김재원박사(金載元博士)가 피임(被任)되었다.

1948年 8月 민국정부 수립(民國政府 樹立)을 맞아 활발(活潑)히 운영(運營)되는 5개

(五蓋)의 본(本).분관(分館)을 갖게 되고, 독립국민(獨立國民)의 새로운 의욕(意慾)으로 한국박물관(韓國博物館) 사업(事業)의 자주적발전(自主的發展)과 질서확립(秩序確立)이 본궤도(本軌道)에 오르고 있던 차 6.25 사섭(事變)을 당(當)하였다.

③ 6.25 사변(事變) 후(後) 동태 (動態)

1950年 6月 사변시(事變時)에 소장국보문화재(所藏國寶文化財) 소개(疎開)의 기회(機會)를 잃고, 9.28수복(收復)을 마지했다.

당시(當時) 적침하(赤侵下)에 있었던 본관(本館).남산(南山).개성(開城).경주(慶州).공주(公州).부여(扶餘) 등(等) 소장품(所藏品)은 예상외(豫想外)로 파손(破損)이 경미(輕微)했다.

1950年 12月 국연군(國聯軍)의 서울철수(撤收)가 예상(豫想)되자 4次에 걸쳐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덕수궁(德壽宮) 미술관(美術館)의 중요(重要) 소장문화재(所藏文化財) 이만점(二萬點)을 부산(釜山)에 대피(待避)하여 부흥태세(復興態勢)를 갖추고 목록작성(目錄作成)과 포장정비(包裝整備)에 진력(盡力)함과 또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을 남산분관(南山分館)으로 통합개편(統合改編)하였음.

1953年 8月 정식 환도(正式 還刀)와 동시(同時)에 경주(慶州),부여(扶餘),공주(公州),삼개분관(三個分館)을 개관(開館)하여 운영(運營)하였다. 본관(本館)은 부산(釜山) 소개창고(疎開倉庫) 내(內)에서 경복궁(景福宮) 내(內)로 복귀(復歸)하였음.

1954年 2月 협소(狹小)한 진열실(陳列室) 진열장(陳列櫥)을 정비(整備)하고 일부(一部) 개관(開館)을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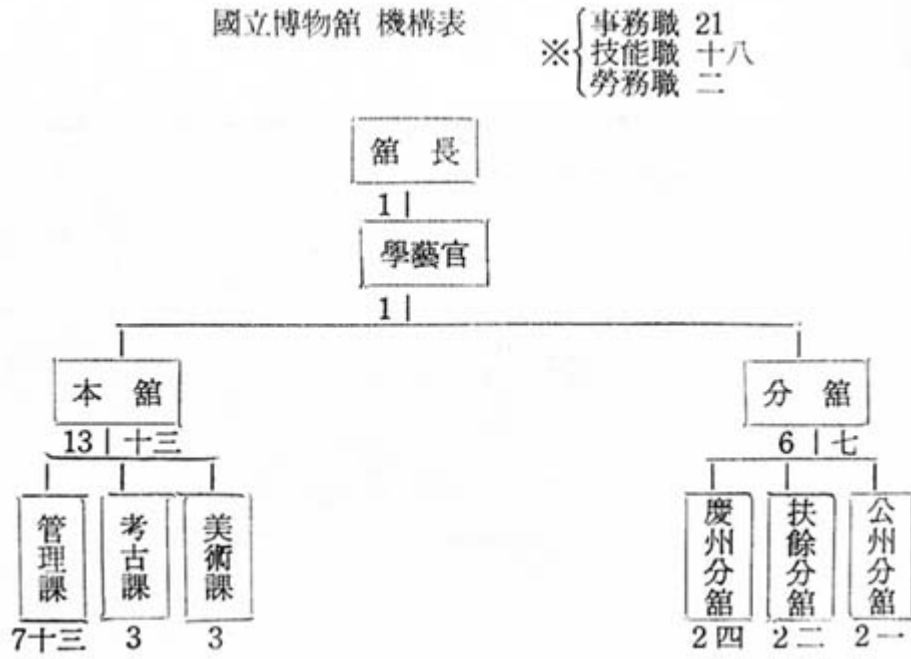
1954年 3月 연합참모본부(聯合參謀本部)가 본관(本館)인 남산건물(南山建物)로 이전(移轉)할 것을 결정(決定)하고 육군공병단(陸軍工兵團)의 시공(施工)으로 수리(修理)된 덕수궁석조전(德壽宮石造殿)에 이도(移徙)하였음.

1955年 2月 진열장(陳列藏) 및 진열실(陳列室) 팔개실(八個室)을 정비(整備)하고 개관(開館)하여 현금(現今)에 이룸.

다음에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의 임무(任務)는 역사(歷史)의 고증(考證) 및 문화예술(文化藝術) 민속(民俗)과 인류학영역(人類學領域)에 속(屬)하는 자료(資料)를 수집보관진열(蒐集保管陳列)하여 일반공중(一般供衆)의 관람(觀覽)에 공(供)하며, 아울러 이에 관(關)한 자료(資料)의 조사연구(調查研究)와 계몽선전(啓蒙宣傳)에 관(關)한 것이며, 주요업무(主要業務)는 고고민속미술(考古民俗美術)과 공예(工藝)와 인류학(人類學)의 영역(領域)에 속(屬)하는 자료(資料)의 수집(蒐集) 보관(保管) 진열(陳列) 고증(考證) 평가(評價) 감정(鑑定) 제도(製圖) 촬영(撮影) 모사(摸寫) 수리복원(修理復原) 및 조사연구(調查研究)와 이에 관(關)한 계몽선전(啓蒙宣傳)에 관(關)한 것이며, 세분(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고자료수집(考古資料蒐集)
- 2, 발굴유물복원(發掘遺物復原)
- 3, 조사연구(調查研究)에 관(關)한 사항(事項)
- 4, 계몽선전(啓蒙宣傳)에 관(關)한 사항(事項)
- 5, 관보간행물(官報刊行物)에 관(關)한 사항(事項)

- 6, 미술(美術)과 공예자료(工藝資料) 수집(蒐集) 고증(考證) 감정(鑑定)
- 7, 특별전시(特別展示) 선전(宣傳) 계몽(啓蒙)
- 8, 국보건조물(國寶建造物)의 실측작도(實測作圖)에 관(關)한 사항(事項)



국립박물관 기구표(國立博物館 機構表)

- ※사무직(事務職)
- 기능직(技能職)
- 노무직(勞務職)

1965년도(年度) 관람자수 일람표(觀覽者數 一覽表) 1965. 9. 30 현재(現在)

관별(館別) 월별(月別)	본관 (本館)	경주 (慶州)	부여 (扶餘)	공주 (公州)	단체 (團體)	무료 (無料)	계(計)
1	3.501	1.198	190	68	150	25	5.107
2	4.316	1.295	268	118	80	0	6.077
3	5.525	1.724	476	231	150	0	8.106
4	15.563	8.801	4.765	438	23.119	0	52.686
5	10.863	10.525	6.230	418	23.268	0	51.304
6	7.906	3.130	741	154	917	0	12.848
7	5.071	2.110	975	177	798	0	9.131
8	6.877	2.778	1.105	295	160	39	11.254
9	6.194	3.247	581	163	7.576	0	17.761
계(計)	65.816	34.808	15.331	2.062	56.218	64	174.299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현황표(國立博物館 所藏遺物 現況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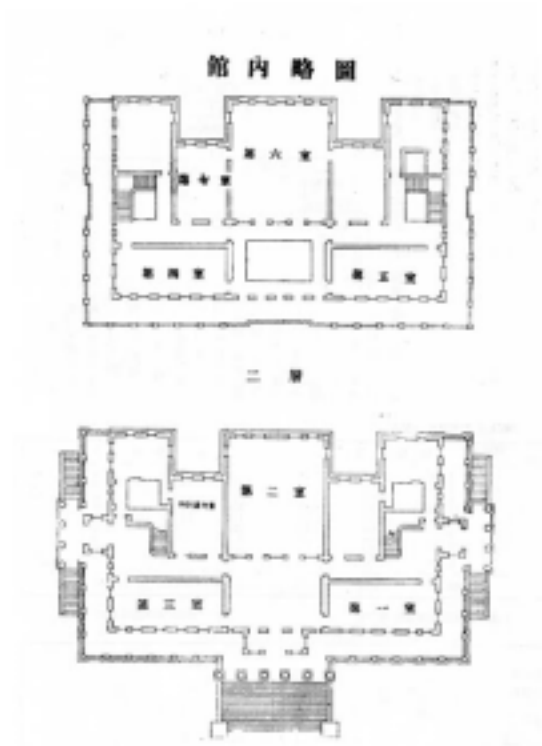
1965. 9. 30 현재(現在)

관별(館別) 종류별(種類別)	본관 (本館)	경주 (慶州)	부여 (扶餘)	공주 (公州)	계(計)
금속제품(金屬製品)	13.816	739	781	55	15.391
옥석 " (玉石 ")	6.484	334	360	73	7.251
토도 " (土陶 ")	20.457	1.953	3.024	334	25.768
골각 " (骨角 ")	779	6	1	0	786
목죽초칠(木竹草漆)	1.423	70	12	0	1.507
피모지직(皮毛紙織)	506	2	0	0	508
서화탁본(書畫拓本)	53.01	694	0	5	6.000
무구류(武具類)	124	1	0	0	125
기타(其他)	5.107	7	0	0	5114
계(計)	53.997	3.806	4.178	469	62.450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진열 현황표(國立博物館 所藏遺物 陳列 現況表)

1965. 9. 30 현재(現在)

관별(館別) 종류별(種類別)	본관 (本館)	경주 (慶州)	부여 (扶餘)	공주 (公州)	계 (計)	비고 (備考)
금속제품(金屬製品)	386	98	201	45	730	
옥석 " (玉石 ")	152	288	153	81	674	
토도 " (土陶 ")	301	198	451	143	1093	
골각 " (骨角 ")	13	0	1	0	14	
목죽초칠(木竹草漆)	47	0	7	5	59	
피모지직(皮毛紙織)	0	0	0	0	0	
서화탁본(書畫拓本)	37	0	0	10	47	
무구류(武具類)	0	1	0	0	1	
기타(其他)	0	0	0	0	0	
계(計)	936	585	813	284	2618	



관내약도(館內略圖)